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정창덕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 17호

송호신문 창窓

취업 강소 대학! 송호대학교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님 인터뷰



1. 취임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호대학교에 11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창덕입니다. 전 총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우리대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동안 우리대학교에 큰 애정을 갖고 노력하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완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저는 'G Top One, N Top One'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G는 'Global'입니다. 학교 전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대학에 있는 학과 중에서 세계적인 과가 나와야 하고 더 깊어지면 단 한명이라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은 'National'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핵심인재를 배출하여 학과와 더 나아가서는 학교를 선양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의 특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송호대학'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에서 수십 개로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취업 강소 대학, 스마트헬스 선도 대학과 같은 송호대만의 브랜드가 있는 특성화가 나와야 하고 또, 산학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NCS를 기반으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교실을 기업 내에 개설하여 그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로 할 때 교수와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기업과 학교 간에 현장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3. 취·창업에 강한 대학, 스마트 헬스 선도 대학으로 '생명' '건강' '복지' 키워드를 제시해주셨는데요.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육 사업 정책 혹은 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구상이 궁금합니다.

첫째, 우리대학교만의 특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과 건강, 복지를 아우르는 스마트 헬스 선도 대학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내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 강소 대학으로 입지를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과의 MOU를 체결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체에 산학협력 교실을 만들어서 학과와 기업체 간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이루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높여서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취업 맞춤형 인재로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학생들의 취업 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학생-교수-취업지원처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개별화-맞춤형 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교육과정 운영을 토대로 학과별 교수진과 학생들은 전공지식에 기반을 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서 활발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여 지표를 높이고 나아가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수진, 학생, 교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풀어나가야 할 과업입니다.

4.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열렸고, 인구절벽 시대에서도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우리대학에서도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 지금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대학에 'object oriented'를 적용한 '일자리 학습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오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어떠한 과목을 듣고 어디서 실습을 하고 인턴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설정한 진로에 부합하는 회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하고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 학생들을 양성해야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를 할 때부터 그 회사의 어떤 인재가 될 것인지를 학생 개별 맞춤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요즈음 사회에서는 창업 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필요로 하므로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1단계, 학생들이 앞으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사업성과 독창성이 보인다면 탐색연구비를 지원하고 2단계,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3단계, 상업화했을 때 마케팅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Talent를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Talent란 핵심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Talent란, 기술(Technology), 응용(Application), 지도력(Leadership), 윤리(Ethics), 협업 정신(Network), 창의력(Think)입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는 인재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역량을 갈고 닦아서 두루 갖춘 핵심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 연결화, 초 지능화, 초 인프라가 되는 시대이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표현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5. 이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업적을 이루시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으셨을 텐데요. 총장님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학령기에는 그리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7남매가 궁핍한 형편으로 생활한 시절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14살 나이에 서울 변두리 지하에 있는 병마개 공장에서 1년 정도 학비를 벌어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상에 걸린 손으로 일하고 여름에는 창문 하나 없는 찜통 속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학비를 마련하여 중학교에 들어가서 전교 1등을 차지했고 반장과 전교회장을 맡아하게 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와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에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은사님의 도움으로 전주에 있는 백제약국의 약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인하여 전주공고에 입학할 수 있었고 왕복 5시간이 걸리는 통학에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취직시험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5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시험에 합격하여 무상으로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고, 90년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되었고 점차 저의 꿈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기찻길 옆 오두막에 살던 가난한 어린이가 간직하고 있던 '플라타너스의 꿈'이 어느덧 조금씩 화려함을 더해가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거지요.

인생은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멈춰 서면 동굴이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외롭고 힘들더라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터널의 끝에는 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구는 밝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길이지만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로 빠르게 나아갈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생각하면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직장과 학업생활을 병행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말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미래가 올 것입니다.

6. 송호인들이 이 가치만은 배우고 학교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송호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 가게 되어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볼 수 있게 되는가를 함께 만들어주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직업, 연봉, 지식과 같은 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 윤리, 인성과 같은 가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송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호대학교는 구성원들의 큰 노력을 통해 좋은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년제 인증을 받은 학과도 개설되고 제한대학에서 제외되었고, 분야별 사회에서 학교를 빛내는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들에 대한 합격률과 취업률이 높습니다.

둘째,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을 살 것인가와 남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힘써야겠습니다. 송호대학이 전국의 20위권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이루고자 하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와 거북이 동화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북이가 토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싸우려 했다는 부분에서 거북이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시 승부를 겨루게 된다면 토끼가 한번은 방심해서 졌지만, 다음번에 또다시 방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지 않았다면 거북이가 승부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북이가 발상의 전환을 하여 자신의 주무대인 바다로 토끼를 끌어들여서 경쟁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한 명문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바다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의 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여 내가 잘해낼 수 있는 바다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전민지, 이상훈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상반기 산업시찰 및 예비 직무체험 학습



우리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는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로 산업시찰 및 예비 직무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첫째 날은 삼척 솔비치 리조트와 양양 솔비치 리조트를 방문했다. 각 리조트의 총지배인 특강과 업장 투어를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2학년 이현정, 김언주 학생의 세미나 발표 및 분담 회의를 가졌다. 둘째 날은 설악 델피노 리조트 총지배인 특강, 업장 투어, 설악산 등산(비룡폭포, 울산바위 코스)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산책로를 통해서 육담폭포 전망대, 비룡폭포 등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산업시찰을 마무리했다.

이날 특강에서 양양 솔비치 원문규 총지배인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적인 성장을 위해 한 달에 4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관광(대명)리조트과 학생들은 이번 산업시찰을 통해 현장을 미리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예비 취업생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김은경 기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세족식 행사 개최



지난 9월 7일 오전 10시 송호관 3층 메이크업 실습실에서 국가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및 세족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원 서부 보훈지청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대학교 로타랙트 동아리, 아틀리에·핸드메이드 동아리, 뷰티케어과, 횡성 로타리클럽,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찾아가는 보훈 복지 1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행사는 헤어와 메이크업, 사진 촬영, 감사편지 낭독, 세족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김나희 학생은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발을 씻겨드렸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셔서 가슴이 뭉클했고 흐뭇했다. 이번 세족식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분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식생활 교육 체험전, '청춘아 잘 먹자' 행사 개최



지난 6월 8일 10시부터 14시까지 우리대학교 진선미관 앞에서 '청춘아 잘 먹자' 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 챙겨 먹기와 인스턴트식(빵, 라면,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고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날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는 '우리 음료 마셔요', '과일 채소 좋아요', '아침밥을 먹어요' 등의 3가지 슬로건을 걸고 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및 시음·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를 개최한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는 식생활 관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드높여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생태계의 보전, 농어업·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0년 3월 1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식생활 교육 횡성 네트워크 박현숙 대표는 "우리 대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한 행사"라며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대학교의 참여와 반응이 참 적극적이었고 특히 주먹밥과 꽃차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 오는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행사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지혜(치위생과 1학년) 학생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역 특산물을 알게 되었다. 토종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자주 아침을 거르게 되는데 아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

이재용 교수 저서, 2017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재용 교수가 집필한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 사례 대상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7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본서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를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조기 예방하고, 현실의 한계점에 대안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재용 교수는 "1년 반 동안 현장의 전문가,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많은 토론 끝에 이 책을 집필했다"며, "사회복지과 학생들과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일반인도 읽는 과정에서 쉽게 사례관리를 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사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자신만의 전문분야에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란 주변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외에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으로 자기계발에 매진하여 주변인들의 신뢰를 얻고 좋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교수는 횡성군 사회복지공무원 및 봉사자를 대상으로 횡성군 최초 연수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전문기관 시스템 체계화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진 기자

(사)한국인성학회와 산학협력 협약식



지난 9월 15일 우리대학교는 송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사)한국인성학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창덕 총장과 (사)한국인성학회 장근철 회장 외 우리대학교의 임원, 한국 인성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대학교는 한국인성학회에 인성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학회의 인성교육 후원과 자격증 및 수료증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대학교는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제반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성교육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인성학회 장근철 회장은 "국민 안전과 사회 안정의 중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인성교육 수련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성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성교육 연구논문 및 실제 사례 발표, 지역별로 설립된 한국인성학회 지부를 통해서 교육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김 진 기자

송호대학교 대표 신문사 悤(창) 신입기자 모집

◆모집대상 : 송호대학교를 다니는 17학번 학생 누구나 가능해요

◆지원자격 :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사진촬영 및 인터뷰 등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

◆기자특전 : 학생기자 임명장 수여
기자 특강 및 신문사 이용 특혜
지도 교수님, 선생님, 기자들과 즐거운 학교생활
특별 장학금 지급

◆지원방법 : 개별 면접

◆지원문의 : 편집장 전민지 (010-7277-1226 / minjee0621@naver.com)

꿈을 위한 도전! 취·창업 골든벨 개최



우리대학교가 2017년 "도전! 취·창업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후 2시 교내 월계관(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모집인원은 재학생 기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했으며, 각 학과에서 학생들의 참가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취·창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출제 예상 문제 500제를 사전 공지하여 참가자들이 약 한 달간의 학습 기간을 거쳐 행사 당일 자신의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당일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외 재학생 관람 및 응원이 가능했으며 경품추첨, 특별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이루어졌다. 시상식에서 골든벨상을 수상한 김은지 학생은 장학금 50만 원과 송호마일리지 100점을 수여했으며, 실버상을 수상한 3명 (박지현, 서주영, 신해민) 학생은 장학금 30만 원과 송호마일리지 70점, 브론즈상을 수상한 6명 (김은경, 박혜진, 심예원, 손유빈, 이재훈, 장주연) 학생은 장학금 20만 원과 송호마일리지 70점을 받았다. 그 외 참여자들에게는 송호마일리지 30점이 제공됐다.

이날 골든벨상을 수상한 김은지(사회복지과 전공심화 2) 학생은 "친구들과 교수님, 조교님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라며 "학생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학교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행사를 빛내준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진, 김웅지 기자

우리대학교 '2017학년도 2학기 튜터링' 행사 개최해

교수학습지원처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9주간) '2017학년도 2학기 튜터링'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목적은 '전공과목 보충 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자격증과정을 통한 자기계발 및 성취감 격려',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성 강화', '학습을 매개로 한 교수-학생, 선·후배, 또래 간의 유대감 형성', '재학생들의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한 학교 만족도 향상' 등 이다. 운영 내용은 '전공과정(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학습영역을 선택하여 숙달하는 과정)'과 '자격증과정(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전공 및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2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도교수(1명), 튜터(1명)와 튜티(6명 이하)가 함께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튜티 참여 자격은 전공과정에서는 해당 강좌를 이수하여 해당 강좌의 성적이 평점 기준4.0(A) 이상인 학생 또는 해당 강좌 교수 추천자이고 자격증 과정에서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수 추천자이면서 송호대학교 재학생만 가능하다.

행사 기간에는 각 팀별로 활동지원금을 2회 지급한다. 행사를 참여한 학생들에게 송호마일리지 '참가(20점), 입선(40점), 1등(100점)'를 지급하며, 추후 서면 자료와 발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입상 성적에 따라 '장려(10만 원), 우수(20만 원), 최우수(30만 원)'과 총장직인이 날인된 장학증서가 지급된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김은혜 선생은 "튜터링을 통한 조직 적응력 향상, 함께 공부하는 학습법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시험준비 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신감 상승, 예습 및 복습하는 공부 습관 등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편리한 기자재 대여 서비스 이용하세요



우리대학교 송호관 1층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본교 교원 및 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자재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보유기자재는 소니 핸디 캠코더(1개), 3M 무선 레이저 포인터(2개), 준성테크 강의용 무선마이크 및 앰프(1개), Zoonics 삼각대(1개) 등이 있다.

대여 및 반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최대 7일까지 대여 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보유기자재 대여 가능 여부를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 기자재 대여 신청서 작성 ▶ 학생증을 제출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기자재 수령 ▶ 기한 내 대여한 기자재 반납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 대여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033-340-1077),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ctl.songho.ac.kr)

전민지 기자

'송호대학교 UCC 공모전'

우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2017학년도 '송호대학교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하브루타 학습법(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거꾸로 학습법(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강의실에서 토론이나 과제 수행), 문제 중심 학습법(현실적인 문제를 다양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며 학습을 진행)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소개 또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행사이다.

공모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대학교 재학생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이 다큐멘터리, 뉴스, 캠페인, 단편드라마, 광고 등 상영시간 1~3분 이내의 순수창작동영상파일을 제작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USB로 제출한다.

행사 참여 시 송호마일리지와 장학금 혜택이 있다. 송호마일리지는 참가(20점), 입선(40점), 입상(70점), 최우수(100점)를 제공하며, 창의성, 내용의 우수성,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 따라 장려상(3팀, 10만 원), 우수상(2팀, 20만 원), 최우수상(1팀,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영상을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색깔로 자유롭고 개성있게 제작하기를 바라며 신선하고 다채로운 영상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앞으로 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 심사계획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 까지며 당선작품 발표회 및 시상식은 10월 23일 날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대학소개-송호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경, 이상훈 기자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열려

우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8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7학년도 '제1회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대학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부속기관-프로그램 관리(일반)-프로그램 참여 신청(학생)-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지원계획서 양식 작성 및 제출 (2학기 수강강좌에 한해 지원 가능)-학습포트폴리오 제작 및 제출' 순을 따르면 된다. 심사 항목은 학습 목표 명확성, 학습노트 작성 여부, 학습 자료의 충실성, 학습 성찰 및 평가, 학습목표 달성 정도 등 5개 항목을 각 20점 배점으로 총합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선발 기준 점수는 참가상(55~59점), 노력상(60점~74점), 입상(75점 이상)으로 입상을 하게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려상 3명(10만 원), 우수상 2명(20만 원), 최우수상 1명(30만 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참가상 5명 (1만 원), 노력상 4명 (3만 원)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현 9월 1일 기준으로 참가자 인원 15명으로 집계되었다.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려 12월 1일은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우리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1.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교육수요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직자전형 교육 과정입니다.

2.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탁생들은 연 2회 (3월, 9월) 재직 증명서 및 공적증명서(4대 보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요일 야간 6교시(18:30~22:40)와 토요일 전일제 15교시(09:00~22:05)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실습으로는 사회복지실습과 평생교육사 실습을 진행하며, 현장기관견학은 한 학기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 진행학과와 학생인원이 궁금한데요.

현 산업체위탁교육은 사회복지과 29명 (1학년 14명, 2학년 15명), 스포츠레저과 1학년 10명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 예정 인원은 사회복지과 20명, 스포츠레저과 33명, 호텔외식조리과 30명입니다.

5. 졸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산업체 위탁생은 본 대학 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게 되어 동일한 졸업사정에 의하여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스포츠레저과는 일반 스포츠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새롭게 모집되는 호텔외식조리과의 경우 교과과정에 따라 한식, 양식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6. 산업체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도 동일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과 학생과 동일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추가 장학 혜택으로는 신입생 학업지원 장학금 30%, 2학기부터는 산업체 장학금으로 수업료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7. 2018년도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전형 일정을 알고 싶어요.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17. 12. 18(월) ~ 2018. 1. 19(금)
접수방법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방문접수 - 송호대학교 산업체 위탁 총괄 박달수 교수 (033-340-1090)
합격자 발표	- 2018. 02. 01(목)
합격자 등록	- 2018. 02. 05(월) ~ 2018. 02. 09(금)
미등록 충원	- 2018. 2. 12(월)부터 ~ 2018. 2. 28(수)까지

산업체 위탁 교육생 인터뷰

사회복지과 / 1학년 박영기 학생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회복지과(산) 1학년의 과대표인 박영기입니다. 나이는 60세,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서 살며, 1990년 12월1일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늘푸른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612수송 근무대 승리교회 군 사역도와 그 외 지역에서 각종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을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가을 무렵, 강원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사장님이신 정상환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다. 학업과 함께 자격증을 얻는 교육이 있다" 는 말씀에 처음으로 산업체위탁교육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3.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은 직장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배움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결정하게 된 과정과 계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금 정상환 장로님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종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도 아닌, 수개월이라는 기간 속에 금요일 속회와 금요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주일 준비와 같이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장로님의 설득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배움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4. 어떤 교육과정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산) 2017학번 1학년은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 수료 후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우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어진 목회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주변과 지역 사회에 연관시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합니다.

아울러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겠습니다.

6.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직 학교 막내인 1학년이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배분들과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이란 끝이 없으며, 평생교육이란 모든 이를 대상으로 일생 동안 학습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생애 범주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런 좋은 기회와 계기가 주어지면 열심히 배워서 보다 나은 삶의 행복을 누리길 바라며, 매사 최선의 도전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일하면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 후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힘이 들지만, 배움에 아쉬움을 갖는 이들에게는 보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전민지, 김 진 기자

복학생 인터뷰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교수님과 칠판이 닳도록 레이저만큼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필시 만학도이거나 복학생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 지난 15호에서 만학도 학생들의 아름다운 열정을 느껴보았으니 이번에는 복학생 선배님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아교육과 3학년 김 영 재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학번 유아교육과 3학년 복학생 김영재입니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나이는 25살입니다^^

2. 다시 복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과에 12학번으로 입학하여 1년을 다니고 입대를 위해서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일 년이라는 배움의 시간은 예비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지식, 기술, 태도를 알아가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직은 적성에 맞아야만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무엇보다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아교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기르고 교육적 철학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과는 전체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의 성적기준에 부합해야만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우선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무사히 취득하여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대학을 찾게 되었습니다.

3. 복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우선 통학생으로서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되어서 힘들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출석만큼은 잘하자고 다짐했기에 다소 힘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서 이전에 배운 공부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는데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동기들이 잘 챙겨주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4. 졸업을 앞두고 목표하는 바가 궁금한데요.

저를 포함한 유아교육과 3학년 전체 학생이 10월부터 유치원 실습을 가게 됩니다.

실습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로서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점검하고 유아들의 연령, 발달수준, 흥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과 유아를 대하는 상호작용 기술,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세, 학급 운영 방법 등을 지도받게 됩니다. 이번 실습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학생들은 곧바로 기말고사를 치르고, 현장 실습과 이론 성적이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하여 진짜 '유아교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기들과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관문인 실습을 무사히 잘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졸업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5. 본인처럼 휴학 또는 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휴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휴학을 하기 보다는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추천하고 싶네요. 중간에 휴학을 하게 되면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더라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6.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해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마운 마음일 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고 언제나 도움을 주신 유아교육과 동기들, 조교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학업에 매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많은 지지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민지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2학년 손 우 빈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학번 관광(대명)리조트과 2학년 복학생 손우빈입니다.

2. 복학한 후에 달라진 학교의 모습이 있나요?

제가 한창 다닐 때만 해도 식당에서 간단하게 매점을 운영했었고 작은 공간이어서 파는 품목이 한정적이었는데 CU 편의점도 생기고, 도약관에 카페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생증은 체크카드와 결합되어 있어서 신기하네요. 또 식당에서 창조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경사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새롭게 공사해서 보다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3. 다시 복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휴학하고 사회에 나와서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밤 9~10시에 퇴근하는 구조로, 많이 바쁜 시기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일했기에 월급도 많이 받았지만, 하청 업체라서 급여가 제날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변에서 먼저 돈을 빌려서 해결하고 급여가 나오면 빌린 돈을 갚는 식으로 했습니다. 생활이 점점 힘들고 지쳐가더군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단된 학업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학했습니다.

3. 복학 후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다시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하려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2학년 2학기라서 인턴을 나가야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사회복지과 야간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 복학하게 되면서 새롭게 다짐한 바가 있나요?

올해의 목표는 우선 중국어를 공부하여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동기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복학생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5. 휴학 또는 복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휴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면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싶은 것을 후회 없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놀고 싶으면 후회 없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에 매진하고, 일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생각나면 저처럼 학교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전에 학교를 다닌 모습보다는 더 나은 자세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함께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20대입니다.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떠올랐다면 무엇이든 원 없이 하시면서 재미있게 이번 학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기자

방사선과 1학년 김 주 녕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3학번 방사선과 1학년 복학생 김주녕입니다.

2. 다시 복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대 후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싶었지만 당장 원하는 것을 해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조금 더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나가고 졸업 후에는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경제적인 면을 충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복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복학 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생활 하면서 배웠던 학습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학하면서 수업을 들어보니 생소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2학기 수업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함께 입학해서 친해졌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니 처음 보는 학생들과 친해지기까지 쉽지 않았던 점도 있네요. 복학하면서 대부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수강신청을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교수님과 조교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4.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럼 복학생으로서 학교에 바라는 지원이 있나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둔다면 감사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복학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가짐이 바로 서있지 않다면 학교에서 그 어떤 무언가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결코 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복학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 계획이나 결심이 있나요?

복학하기 전에는 군대 가기 전처럼 강의가 있어도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혹은 친구들이나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때 등 다양한 핑계로 수업에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어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 친구랑 떠들거나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잠드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선임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더는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서 출석률, 성적관리를 잘하여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는 학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부가 어렵게 느껴져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 아니면 답이 없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6. 휴학을 마음먹은 학우들이나 복학하려는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중에 내가 결정한 것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깊은 생각을 해보고 진정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책임에 따른 결정과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다시 살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깊고 신중하게 생각에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잘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방사선과에서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동기들과 나이 차이도 나고 기수도 다르기에 학년의 시작부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많이 다가서지 못했는데 저도 마음을 더 열고 다가설 테니 친한 형처럼 오빠처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고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며 잘 지냈으면 합니다. 방사선과 아자!!!

이상훈 기자

학과 탐방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정보분야의 전문지식과 첨단의료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병원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보건행정과를 소개합니다







1. 보건행정과는 어떤 과인가요?

보건행정과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행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정책, 병원경영정보, 의료관리 및 의무기록, 의료정보 등의 분야로 편성하여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기초의학 지식부터 원무행정,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및 의료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의료정보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료정보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의료기관 환경에서 사용되는 실무프로그램과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HIS, OCS, PACS, EMR) 등에 관한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행정 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3년제 과정을 통해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이론교육과 보건교육실습으로 보건교육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2. 보건행정과만의 행사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에서는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교내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과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로는 의료정보전문가 선서식, 방학특강, 의무기록사 국가고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전문가 선서식은 이제 막 의료정보전문가의 길에 발을 내딛은 신입생들이 촛불을 밝히며 참된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해 다짐하는 선서식입니다. 하계방학에는 2학년들을 위한 의료정보관리사 특강, 3학년 국가고시를 대비한 의무기록사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도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이끌어 주시며 학생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3학년들이 의무기록사 국가고시에 응시합니다. 학생들의 3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이 때는 3학년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과 구성원이 의무기록사 시험을 응시하는 3학년들을 응원합니다.

3.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졸업 후 진로는 '공무원(보건직, 의료기술직, 시군 보건소)', '정부산하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금관리공단)',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의 의무기록실, 원무과, 기획실, 홍보과, 병원코디네이터, 보험청구심사)', '일반기업(보건위생 관련업체, 보험회사 적부심사요원)', '편입 및 연구소(4년제 대학 편입, 보건관련연구소, 행정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병원코디네이터,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4. 보건행정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에서는 '학생 멘토제 실시(재학생들 간의 멘토제 운영)', 'Home Coming Day 운영(졸업생과 재학생의 정보 및 취업 연계를 위함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1+3 제도운영(1학년 중 병원코디네이터,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취득)', '2+3 제도운영(2학년 중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중 3개 이상 취득)', '학과 인증제(학과 관련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 자격증 및 전공 실무 능력을 학과 인증을 통해 적극 활용)'등의 과정을 통하여 보건행정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교수제 활성화로 입학 전부터 졸업 후 생애 지도관리 체계 확립 및 현장 멘토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겸임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 및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멘토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5. 보건행정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보건행정 학우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즐기며 생활 하고 싶을 20대의 문턱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물론 삶에는 실망과 좌절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자기 자신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질 것 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의 힘듦 또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력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힘들었던 시간이 훗날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졸업 후 폭넓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인성을 갖춘 멋진 사회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항상 제자들과 후배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늘 응원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파이팅!

이상훈, 조준연 기자

학생들의 이야기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송호인의 이야기!

방사선과 1학년 강 민 조

대학에 오기 전에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던 경험으로 방학동안 이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호흡기 내과는 처음 해보는 분야라서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방사선과에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병원에서 경험해볼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환자를 도와드리면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어서 방사선사로서 앞으로 환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1학년 김 해 인

이번 방학 동안 많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했는데요. 저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장난감 소독을 하고, 간식을 먹은 접시나 포크를 설거지하고, 장난감을 놓는 선반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하는 짧은 시간의 봉사이기에 교육활동보다는 청소 위주로 봉사를 했습니다. 다소 힘들었지만 다가올 실습에 대비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내가 꿈꾸는 유아교사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서 더욱 값진 시간으로 보람찬 방학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김 민 지

이번 여름방학은 특별하게 가족들과 경포해수욕장으로 2박 3일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서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강릉 특산물도 다양하게 맛보고 여유로운 풍경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놀이도 하면서 함께 사진 찍으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하고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이었기에 의미 있는 방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행의 기회를 자주 갖고 싶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다음에는 친한 친구와 일본 여행을 가서 함께 기모노를 입고 예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호텔외식조리과 2학년 김 진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둔내에 위치한 웰리힐리 리조트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실습장에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군기가 잡혀있다며 선배요리사,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 나름 편안하게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 시간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7시까지인데 늦으면 2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로 매일 몸이 뻐근하고 쑤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어도 항상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학과 교수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던 '요리사라는 직업은 남들이 쉴 때 우리는 같이 쉬지 못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실습이 저에게는 요리사라는 직업에 미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제가 할 수 없었던 요리와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배웠던 지식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많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실습을 다녀오니 전과 비교될 정도로 학교생활이 편해지고 보다 쉽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고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은 저에게 예비사회인으로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 행 문

동해바다를 떠나는 낚시 여행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알게 모르게 피로가 많이 쌓였던 것 같다. 그래서 힐링 여행으로 준연 기자와 함께 동해로 낚시 여행을 떠나기로 정했다.

이번 여행 목적은 낚시만이 아닌 동해의 냄새와 경치 구경, 그리고 소박하게나마 준비해 간 음식과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함께 조리해서 먹을 생각에 설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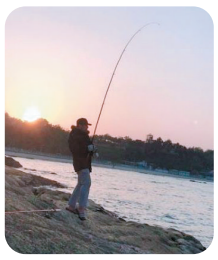
우선 여행에 앞서 먼저 계획을 세워 보았다. 기간은 2박 3일로 날마다 할 일과 식사를 정하고 도착지 주변의 낚시 포인트를 예상하여 경로를 정했다.

첫째 날, 5월 4일 대망의 여행지로 출발하기 전에 부족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마트에 들러 라면, 부탄가스, 잡은 물고기를 담을 통, 도마, 식기 등을 구매하였다. 미리 점검해 놓은 메모지를 보면서 가는 날 아침부터 마트에 들러 장을 보려고 하니 정신이 없었다. 또한 막상 도착해서 보니 현지 조달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빼먹은 물품들이 있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떠나려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 전날에 미리 장을 봐 놓을 것을 당부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11시에 횡성에서 차를 타고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목표지로 정한 강원도 속초시 '아야진항' 선착장에 도착했다.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모되었고, 기름값과 통행료를 포함하니 약 2만 5천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다.

도착해서 미리 봐두었던 화장실과 포인트가 가까운 곳 주차장에 짐을 풀어헤치고 낚시 도구를 챙긴 후 출발 전 눈여겨보았던 첫 번째 낚시 포인트로 떠났다. 바다를 마주 보니 그간 서해로는 몇 번 출조를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서해보다 동해는 바닷물도 맑아 보이고 파도도 비교적 심해 보이지 않았다. 왠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막상 낚싯대를 드리우고 보니 입질이 영 신통치 않았지만 애초에 경치 구경하면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자는 마음이 강했던 여행이었기에 마냥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첫 입질 후 한 뼘이 약간 넘는 물고기가 올라왔다. 물고기의 정체는 노래미! 미리 조사하고 갔던 대로 노래미가 잘 나오는 곳이었다. 이곳은 복어, 도다리가 주를 이루며 뜸하게 광어도 나온다고 한다. 첫 수 후 두어 마리 더 잡고 해가 지기 전에 낚싯대를 접고 저녁을 해결하러 야영지로 향했다.



첫날 저녁은 라면에 생선을 넣어서 해물 탕을 끓이고 몇 마리 안 되지만 회를 떠서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뿔싸! 손질을 거의 다 마친 물고기를 담은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결국, 물고기들을 못 먹게 되었고 첫날 저녁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라면만 끓여서 먹었다. 밖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집에서 먹는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리의 맛이지만 내일은 꼭 회랑 매운탕을 먹어야겠다고 떠들다가 잠이 들었다.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절실해야 물고기가 잘 잡힐 거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분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부랴부랴 바쁘게 준비를 했다. 해초가 많아 약간의 밑걸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불편함은 없었기에 어제 낚시했던 곳으로 다시 향했다. 낚싯대를 드리우니 어제 보았던 노래미가 다시 반갑게 찾아 주었다. 같이 갔던 친구는 낚시가 처음이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노래미를 8마리 정도 잡아서 늦은 오후 야영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손질을 마친 물고기와 마트에서 사 온 삼겹살, 그리고 라면 수프의 도움을 받은 해물탕을 끓여서 소주와 함께 먹었다. 동해에서 잡아 올린 노래미는 손질하기 전까지 팔팔하게 살아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했고 물이 맑아서인지 싱싱해서인지 시중에서 먹었던 그 어떤 회보다도 더 맛이 좋았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향과 단맛이 정말 좋았다. 삼겹살과 해물 탕까지 다 먹고 나니 배도 부르고 술기운도 올라와서 자리에 누운 채로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다. 내일은 해초가 없어 보이는 모래사장 쪽 포인트에서 오전만 잠깐 낚싯대 드리우고 바닥 탐사나 하다가 가자고 다짐하다 잠이 들었다.



마지막 날, 전날 과음을 해서인지 피로가 쌓였던 건지 그리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서 한두 시간이라도 해보고 가자는 생각에 주섬주섬 낚시도구들을 챙겨서 모래사장 쪽 포인트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첫 입질에 노래미가 나와서 근처 포인트가 다 똑같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조금 들었다. '한 시간만 더 바다 구경하고 가야지'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도다리가 올라오는 것이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다른 생선이 올라왔기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곧이어 복어까지 잡혔다. 낚시도구들을 정리하고 야영지로 가서 잡은 노래미랑 도다리를 손질해서 바로 회를 떠서 먹고 대학 기숙사로 향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서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로 부족한 끼니를 해결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낚시 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동해를 다시 한 번 찾고 싶다는 것이다. 2박 3일 동안 여행하면서 학생이기에 최대한 소박하게 보내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외의 지출들이 생겼고 낚시와 바다라는 소재에 너무 국한되어서 여행 계획을 구성하였기에 주변의 용대3리 황태촌에서 개최하는 황태 축제라던가,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까 주변 맛집 탐방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갖고 다시 한 번 동해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주변에 모래사장과 주변 경치가 잘 보이는 펜션들이 많으므로 기왕이면 애인과 함께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상훈 기자

가을의 송호우체통

첫 번째 이야기
'고마운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

방사선과 1학년 김승표

고마운 친구, 준연에게

준연아 안녕! 너한테 편지를 써서 많이 당황했지? 다름이 아니라 '송호우체통'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있어.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손꼽는 점은 바로 의리 때문이야.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 사귀기가 너무 어려웠거든… 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네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 줬잖아. 그때 너무 고마웠어. 그렇게 네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네가 참 좋더라. 난 나와 잘 통하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봐온 넌 의리 하나는 짱이라고 생각해! 너의 그런 점이 난 참 좋고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고맙다. 나도 너처럼 주변 사람을 잘 챙겨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남은 대학 생활 함께 잘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사선과 파이팅!!

간호과 1학년 심규협

지연에게

지연아 안녕! 편지로 만나는 넌 어떤 기분일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해왔고 이렇게 쌓아온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분명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일 거야.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게 어색했던 나에게 넌,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가르쳐줬고, 항상 답답하기만 했던 나를 그냥 지켜봐 주던 너를 보면서 난 격려 받는 느낌을 받았어.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나에게 네가 없었더라면 어쩔 줄 몰라 방황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야. 난 언제쯤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벼르는 중인데 넌 역시 빈틈이 없더라! 그래도 내가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볼게. 앞으로 계속 함께 하면서 아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얼굴에 쓰고 다녀도 좋아. 그 정도로도 좋지만 얼굴을 마냥 도화지처럼 쓰지 말고, 가끔은 화나면 툭툭 치기도 하고, 토라지면 서로 풀어가면서 서운한 것 없이 지내기로 해. 그럼, 못난이 안녕~

도서 추천 자료

'숨결이 바람이 될 때 (When breath becomes air)' 책을 읽고 나서



"만약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책은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려는 순간,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서른 여섯 살, 젊은 의사의 이야기이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는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주인공 '폴'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의 역사 과정을 이수한 뒤 예일 의과 대학원에 진학해 졸업 후,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전문의가 되기 직전까지의 폴의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2부에는 '폴'이 폐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 암과 싸우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폴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삶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의미 등이 담겨 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건강, 체력, 젊음을 아낌없이 투자해 가며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그는 혹독하고 힘든 레지던트 생활에서도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며, 환자들이 좌절하거나 혹은 기대를 너무 품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며 환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어떤 처방과 수술이 도덕적으로 더 옳은가를 항상 고민하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왔다. 바로 폐암 말기 판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걸린 병에 대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증상인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심정은 읽는 이로 하여금 연민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책의 마무리는 폴의 아내가 지었다. 옆에서 지켜본 폴의 모습을 아내의 시점에서 농담까지 섞어가며 담담하게 이야기했으나 '자신은 폴의 마지막 목격자이다.'라는 구절에서 나는 폴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죽음은 무엇일까? 만일 나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고민해 보게 하는 책이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폴이 비록 암에 걸렸으나 아내인 루시와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폴의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것이었다. 폴은 자신의 아이 케이티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아빠로서의 삶,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아빠로서 그는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픈 몸으로 케이티를 안아주고, 놀아주는 그의 모습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계속 생각했다. 죽기 전 그의 책에 아빠의 흔적을 남겨 주는 것이었다. 그 흔적은 간단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폴은 아빠로서의 최선과 삶을 다했다. 하루하루 병마의 고통과 싸워나가면서도 자신의 딸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이었다.

과연 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폴처럼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 책은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더욱 보람차고 소중하게 느끼도록, 그리고 깊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 또한 숨결이 바람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보람차고 알차게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김은경 기자

횡/성/소/식

'안흥 찐빵'과 '한우'를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10월의 횡성 축제

가을을 풍미하는 '안흥찐빵축제'와 '횡성한우축제'가 오는 10월에 잇달아 개최된다.

횡성 4대 축제는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 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축제이다. 가장 먼저 열린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둔내종합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려 지난해보다 2배가 많은 17만5000여명이 방문해 횡성의 내실 있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지난 9월 17일 성황리에 폐막한 '제6회 횡성더덕축제'(청일면 농거리 야영장 일원)에 이어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안흥찐빵마을 광장에서 '제11회 안흥찐빵축제'가 열린다.

올해 안흥찐빵축제는 '찐한 추억, 빵 터지는 재미'라는 슬로건으로 안흥찐빵 체험 프로그램,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억 여행 테마관, 도깨비 도로 랠리 체험, 안흥찐빵 무료 시식 등의 행사를 통해 안흥찐빵 브랜드 가치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13대 횡성한우축제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횡성읍 섬강둔치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횡성 4대 축제 중에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한우축제는 전국에서 세계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행사이다. 횡성한우는 10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축산물 한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열린 축제에는 90만여 명이 방문해 경제유발효과 780억2400만 원, 고용효과 828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행사내용은 소발갈이 체험, 외양간 체험, 한우 놀이마당, 추억의 고고장(가면무도회), 100만 송이 LED장미, 야간 빛축제, 경축공연, 각종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배 군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횡성 4대 축제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을거리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의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횡성 4대 먹거리 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2017.08.11~2017.08.15	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
횡성더덕축제	2017.09.15~2017.09.17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양영장 일원
안흥찐빵축제	2017.10.13.~2017.10.15	안흥찐빵마을 광장
횡성한우축제	2017.10.19.~2017.10.23	횡성읍 섬강둔치 일원

전민지 기자